

사회적 판단과 동기: 동기가 인지적 책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 신 호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의 최근의 변화, 즉 인지적 접근의 쇠퇴와 동기, 정서를 강조하여 인지적 요소들과 연결시키는 경향성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즉, New Look과 인지부조화의 역동적 심리학의 시대에서 인지적 접근의 시대를 경유하여, 정서-인지 관계, 자기분위 귀인 편파의 동기-인지 논쟁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최근의 경향으로서, 동기와 인지를 함께 고려하는 warm look의 대두를 설명하고, 특히 동기가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즉, Tesser의 자기평가 유지 모형, Kruglanski의 lay epistemics, Zukier의 설화적 지향과 범례적 지향, 그리고 Kunda의 동기화 추론 연구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동기가 인지적 규칙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Sanitioso-Kunda, Ginossar-Trope, 그리고 Zukier-Pepitone의 실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안신호-문지혜-권오식의 인과추론 규칙(차이범 대 상호작용 논리)에 동기가 미치는 영향, 안신호-김상우의 범주화 규칙(AND규칙과 OR규칙)에 동기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의의를 이진 연구들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사회적 판단은 대개 그 개인이 처한 맥락(욕구, 역할, 감정 상태)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판단이 그 개인에게 갖는 의미(그 개인의 자아 개념에 미치는 효과, 그 개인의 미래행동에 초래하는 영향)가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판단 대상과 판단자와의 관계라는 변인은 1950년대

의 New Look학과, 그리고 1960년대의 부조화 연구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일부 사회인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판단대상과 판단자의 관계보다는 판단대상의 속성들이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졌다. 판단대상의 속성만을 다룰 때, 그 연구결과와 사회심리학적 의의가 많이 감소함을 1980년대에 와서 사회심리학자들은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우선 196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의 이러한 연구 흐름의 역사적 변천을 대략적으로 개관하고, 1980년대 이후 사회심리학계에서 보이는 변화의 양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 본 연구는 연암문화재단의 1994-1995년도 해외연수교수 지원연구비의 도움을 받아 수행된 것이다. 연암문화재단에 감사드리며, 미국에 체재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Michigan 대학교의 R. E. Nisbett, M. Manis, Stanford 대학교의 H. R. Markus 교수, 그리고 최인철 군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초고에 대해 매우 유익한 평을 주신 두 익명의 평가에게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어서 최근의 사회심리학자들의 새로운 연구경향, 즉 동기-인지의 관련 속에서 인간의 자아, 판단과정,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측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은 동기가 판단 내용 및 판단에 동원되는 인지적 규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어 자세히 다룰 것이다.

사회심리학의 여름, 겨울, 그리고 봄

귀인이론이 대두되기 이전, 즉 1960년대 말까지는 인지부조화이론(Festinger, 1957)을 비롯하여 개인 내적인 다양한 불일치를 다룬 이론들(Abelson, Aronson, McGuire, Newcomb, Rosenberg, & Tannenbaum, 1968)이 부각시킨 '부조화로부터 조화로'라는 갈등해소적(동기적) 입장이 사회적 판단 관련 사회심리학 연구의 주된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 방향에 반발하는 중요한 이론적 움직임이 1960년대에 시작되고 있었다. Bem(1967)의 자기지각 이론은 인지부조화 현상을 인지적 조망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Schachter의 정서이론(Schachter & Singer, 1962)은 정서라는 역동적 심리현상이 상황추론이라는 인지적 작용의 부산물로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 두 이론은 각 이론의 근거가 되는 원래의 실험(Bem, 1965; Schachter & Singer, 1962)의 결과가 별로 결정적이지 못한 점¹⁾은 무시된 채²⁾, 큰 주목을 (그리고 많은 지지자를) 얻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두 이론 모두 그 적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Sears, Peplau, & Taylor, 1991)³⁾. 이 두

이론은, 부조화를 체험하는 당사자의 부조화해결 전략이 아니라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타인에 대한 귀인을 다룬 Jones의 실험들(예컨대, Jones, Davis, & Gergen, 1961)과 더불어, 귀인이론의 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Jones, Kanouse, Kelley, Nisbett, Valins, & Weiner, 1972, p. x). 결국 귀인이론의 대두 이후, 사회적 판단자의 모습은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이 암시하는, 갈등해소로 변민하는 "일관성 추구자"(consistency-seeker)의 모습에서, 주어진 정보에 입각하여 가급적 합리적인 판단에 달하려고 궁리하는 "소박한 과학자"(naive scientist)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Fiske & Taylor, 1984, 1991).

1970년대에는 또한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 이론을 물질적 대상이 아닌 인물 및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심리학적 대상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아주 활발히 벌어졌다. 이 움직임은 "사회인지"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시켰다. 이 사회인지 이론가들에게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Kahneman과 Tversky를 들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판단과정에서 많은 (형식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의) 오류(혹은 편파)를 보인다는 사실의 발견(Kahneman & Tversky, 1972a, 1972b, 1973; Tversky & Kahneman, 1971, 1973, 1974)은, 귀인 이론가들의 사회판단자로서의 인간관을 "소박한 과학자"로부터 "인지적 구두쇠"로 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Kahneman과 Tversky가 제시한 다양한 "대충의 판단전략"(heuristic)들은 사회인지 이론가들의 불가결한 설명개념이 되었다(Kahneman, Slovic, & Tversky, 1982; Nisbett, 1993).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의 정보처리적 접근의 사회심리학은, 요컨대, 귀인이론이 계기를 만들었고, 인지심리학의 획기적 발전,

1) 특히, Schachter-Singer(1962) 실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Plutchik(1980)을 참조할 것.

2) Tomkins(1981)에 의하면, 미국의 심리학자들 중에서 Schachter-Singer의 원 실험 논문을 직접 읽은 사람들은, 놀랄게도, 별로 많지 않았다 함.

3) Schachter의 정서이론이 예언하는 바, 즉 오귀인,

false feedback, 및 각성 전이(arousal transfer)에 대한 연구들의 미약한 증거 혹은 해석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관은 Leventhal과 Tomarken(1986) 및 Reizenstein(1983) 참조.

그리고 Kahneman과 Tversky가 1970년대 초반에 발표한 판단 연구들에 자극을 받아 사회심리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혹은 인지적 사회심리학(cognitive social psychology: Hastorf & Isen, 1982)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략 귀인이론의 연구에서 출발한 경우(예컨대, Fiske, Kruglanski, Nisbett, L. Ross, Taylor), 인지심리학에서 다루어 오던 주된 현상(예컨대, 기억)을 사회심리학적 주제에 확장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은 경우(예컨대, Bargh, Srull, Wyer), 그리고 인간의 성격이나 역동적 사회심리적 현상(예컨대, 正의 감정이 이타행동이나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심리학적 이론틀 안에서 설명해 보려 한 경우(예컨대, Cantor, Greenwald, Isen, Markus)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연구 경향은 왕성한 연구와 풍요한 연구업적을 낳아, 많은 단행본(예컨대, Fiske & Taylor, 1984, 1991; Nisbett & Ross, 1980)과 편집된 논문집(예컨대, Cantor & Kihlstrom, 1981; Hastorf & Isen, 1982; Higgins, Herman, & Zanna, 1981; Wyer & Srull, 1984, 1994)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계에는 또다른 변화가 1980년대 초반부터 움트고 있었다. 그 변화는 정서와 인지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사회인지적 이론틀 내에서 정서는 무시되거나 Schachter-Singer의 이론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치부되어 왔었다.⁴⁾ 이 이론에서 정서는 자신의 흥분(arousal)이 왜 생겼는지 모르는 인간의 사회적 비교에 따른 상황 추론의 부산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Schachter와 Singer(1962)의 실험을 비슷하게 반복한 두 실험(Marshall & Zimbardo, 1979; Maslach,

1979)에서의 결과는 Schachter-Singer 실험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인지의 부산물로서의 정서가 아닌, (1)정서에 영향받는 기억 및 판단에 관한 Bower(1981)의 연구와, (2)정서체계가 인지체계에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정서현상이 그것에 관련된 인지현상보다 선행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Zajonc(1980)의 연구이었다. “인지에서 정서로”라는 화살표를 “정서에서 인지로”라는 방향으로 반전시키는 이 계열의 연구는 1980년대에 폭발적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인지심리학 및 사회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Clark & Fiske, 1982; Fiedler & Forgas, 1987; Forgas, 1991; Hastorf & Isen, 1982; Izard, Kagan, & Zajonc, 1984; Moore & Isen, 1990).⁵⁾

동기와 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의 변화는 다소 늦게 나타났다. 사회인지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사회판단자의 동기와 정서, 그리고 판단할 정보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자들의 주 관심은 이 두 가지 중 정보의 속성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인지 연구의 초점이 정보의 속성에 두어져서는 곤란함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 및 성격심리학자들은 그 동안의 그들의 사회인지 연구들 중 적어도 일부는 사회지각자의 동기와 정서에 초점을 두어 재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Markus & Zajonc, 1985; Showers & Cantor, 1985). 특히 Markus와 Zajonc(1985)는 1970-1980년대의 사회인지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이 연구들이 1950년대의 New Look 접근과 이론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p. 197), “부조화 연구에 대한 [이

4) 임상심리학 영역의 Tomkins와 Izard(Tomkins, 1962, 1963; Tomkins & Izard, 1965)가 진작부터 취해 온 반대 입장은 오랫동안 사회심리학자들에게 무시되었다. 1960년대, 1970년대의 사회심리학자들은 Nisbett, Valins, Rodin 등 Schachter의 제자들이 Schachter 이론을 응용하기 위해 제안한 가설들(예컨대, 오귀인)의 입증여부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5) 사회심리학 영역에서는 애당초 정서-도움행동 관계 연구(예컨대 Isen & Levin, 1972; 안신호, 1980a, b, 1983, 개관 참조)의 결과를 기초로 정서-인지관계에 관한 연구로 전환한 Isen(Isen, Shaiker, Clark, & Karp, 1978)을 위시하여, 미국, 유럽(예컨대, Fiedler), 호주(예컨대, Forgas)의 사회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인지심리학 영역에서는 *Cognition and Emotion*이라는 새 잡지를 출간할 정도로 연구량이 많으며, 국내에서도 김기중(1983)과 이홍철(1993)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지심리학 영역에서의 개관 은 이홍철, 1995 참조.)

론적] 시계추는, 원래의 “역동적(hot)” 관점에서, 자기지각적 설명이라는 “인지적(cool)” 관점을 지나, 이제 다시 인상관리라는 “동기-인지적(warm)” 개념화로 되돌아 왔고”, 이것은 “정보처리적 개념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 답하기 곤란한 실험결과들”, 그리고 “정서 및 동기적 요인이 더 자주 고려되는” 새로운 사회심리학 연구 경향성의 한 예라고 주장하였다(p. 214). 이제 사회심리학의 기후는 여름에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것이다.

겨울에서 봄으로의 사회심리학의 환절기적 변화의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Cantor와 Markus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인지 연구영역의 세 부류의 학자들 중 성격(자아)에 관하여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입장이 보다 선명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한편 귀인이론 연구에서 출발한 Taylor와 Fiske는 1980년대 들어서서 사회인지 이론가들이 보인 변화의 다른 한 유형, 즉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Taylor는 자국의 특출성(salience), 세마와 범주화로서의 고정관념화(stereotyping) 연구로부터 통제욕구를 강조(Taylor & Brown, 1988)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Fiske(1989)는 고정관념화 자체를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후술할 것임)을 지적하고, “의도”에 초점을 둔 고정관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기를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의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동기(목표)-인지를 연결하는 연구들을 모은 책의 출판이었다 Sorrentino와 Higgins(1986a, 1996; Higgins & Sorrentino, 1990)가 세 권으로 출간한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과 주로 성격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모은 Pervin(1989)의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는 이른바 “warm” look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었다.

사회인지 관련 연구를 가장 잘 정리한 책이라 할 수 있는 Fiske와 Taylor의 *Social Cognition*의 첫 판(1984)과 개정판(1991)의 차

이는 지금까지 언급해 온 사회심리학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인지와 동기라는 두 요소를 고려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thinker)’에 대한 사회심리학에서의 일반적 관점으로서 [시대에 따라] 일관성 추구자, 소박한 과학자, 그리고 인지적 구두쇠의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첫판, p. 9)는 대목은 개정판에서는 네 가지 관점으로 바뀌고, 최근의 관점으로서 동기적 책략가(motivated tactician)를 추가하였다(p. 10). 이러한 사회심리학의 변화를 조은경(1994)은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여진 사회심리학의 연구의 흐름은 동기와 정서의 재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요약한 바 있다.

자기본위적 편파 논쟁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는 중요한 논쟁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것은 귀인에서의 동기적 편파에 관한 것이었다. 자신의 성공을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의적으로 귀인하는 이른바 자기본위적 편파(self-serving bias)에 관하여 먼저 Miller와 M. Ross(1975)가, 그리고 Nisbett과 L. Ross(1980)가 반론을 제기하였다. 자기본위적 편파는 인지적 설명에 치우쳐 있는 귀인이론 속에서 동기적 설명을 분명히 내세우는 주체이었기 때문에 동기와 인지의 설명력 논쟁에서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이 두 반론의 요체는 당시까지 자기본위적 편파를 주장하는 연구들이 동기적 설명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즉 인지적인 대안적 설명을 완전히 배제할 만큼의, 증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M. Ross 자신은 후속연구들(McFarland & M. Ross, 1982; M. Ross, McFarland, & Fletcher, 1981; M. Ross & Sicoly, 1979; Sicoly & M. Ross, 1977)에서 자신이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동기적 설명을 지지하는 대표적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Heider(1958)가 귀인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으로서 (1)이유가 그 사람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2)주어진 자료가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함을 들었던, 어떻게 보면 귀인의 기본전제의 하나로 여겨지던, 이 문제에 반론을 제기한 Nisbett과 L. Ross(1980)의 입장은 보다 강경했다. 이른바 자기분위적 편파로 해석되는 결과들은 Kahneman과 Tversky가 제안한 대표성 판단 전략과 L. Ross(1977)의 근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로 설명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Nisbett과 L. Ross의 이 주장은 그러나 인간이 자존심의 유지를 위하여 귀인의 편파를 보임을 보다 정교한 실험으로 밝힌 많은 연구들(예컨대, Gollwitzer, Earle, & Stephan, 1982; Stephan & Gollwitzer, 1981; Tesser, 1980; Tesser & Campbell, 1983)에 의해 지지를 잃었으며, 자기분위적 편파는 이제 거의 모든 사회심리학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예컨대, Kelley & Michela, 1980; Sorrentino & Higgins, 1986b). Nisbett 자신은 최근 미국 남부인들의 “명예”의 문화(culture of honor)에 관한 연구로 관심을 바꾸었다(Nisbett & Cohen, 1996). 자기분위적 편파의 논란은 사회적 판단을 완전히 인지적으로만 설명하고자 했던 1970년대 사회인지의 극단적 입장의 운명을 극적으로 예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 및 성격심리학계에 불어온 이른바 “정서와 동기의 복귀”(조은경, 1994)의 동향 중 인상적인 예들을 소개하였다. 동기와 인지의 관련성(motivation-cognition interface)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끝으로 왜 사회적 판단 혹은 행동을 인지적으로만 접근하면 곤란한가에 대한 한 예를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의 한 백인이 지독한 인종차별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하자. 그 백인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참고증언을 하기 위하여 고정관념 전공의 사회심리학자가 법정에서 출두하였다고 하자. 그 심리학자는 피고

측 변호사의 추궁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 심리학자는 결국 “고정관념에 관한 인지적 접근의 일반적 해석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라고 답하게 될 것이다(Fiske, 1989, p. 254). Fiske(1989)는 1970년대에 자신이 공동필자로 참여하여 발표하였던 논문(Taylor, Fiske, Etcoff, & Ruderman, 1978)이 “인종은 지각자의 의도성과는 무관하게 부호화 전략으로 사용된다”는 서두로 시작했음을 회상하며, 이른바 의도(즉 동기)가 무시된 사회심리학의 비현실성을 강조하였다. 좀 더 부연하자면, 내집단-외집단 구분이 이루어진 후의 상대방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및 관련 현상을 인지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일 것이다.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라는 현상이 어떻게 인지적일 수 있다는 것인가? Kuhl(1986)이 지적하듯이 인지심리학의 획기적인 진전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인지적”이라는 용어 사용의 인플레이션이다. 인간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인지적 과정이라 부르는 경향은 사실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Kuhl, 1986, p. 405).

인지와 동기의 만남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판단자는 단지 주어진 자극의 특출성, 세마, 대표성에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각 자극은 한 시점에서 개인에게 독특한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그 개인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Lewin, Dembo, Festinger, 및 Sears(1944), Bruner와 Tagiuri(1954), Kelly(1955), 그리고 McGuire(1960) 등에 의하여 강조되어 오던 것이다. 전과 다른 것은 그 사이의 인지심리학의 발달로 인하여, 동기가 개인이 처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인지활동과 관련지으며 우리의 마음의 현상을 전개시키는가를 분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우

리가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에서 밝혀 내어 준 인지구조와 인지과정 이론들이 위에 언급한 희망을 충족시킬만한 것인지, 또 우리의 연구방법이 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 및 성격심리학자들은 이 길이 최선이라는 데에는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10여년 동안 주로 인지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오던 여러 사회심리학 연구영역에 동기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많은 성격심리학자들이 “삶의 목표”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1) 소위 사회심리학의 “겨울”과 “봄”의 대조를 태도와 인지부조화 연구의 경우를 들어 예시하고, (2) 그 밖의 사회심리학 주제 및 성격심리학에서의 연구경향을 앞으로의 전망을 암시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판단과정이 동기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밝혀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므로, 이에 관련된 이전 연구들은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태도와 인지부조화 연구에서의 동기의 복귀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대표적인 예로 태도 연구, 그리고 인지부조화 해소기제에 관한 Steele(198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태도의 정 평가 대상에 대한 정서적(평가적) 측면으로 잡혀가는 경향이 보인다(Eagly & Chaiken, 1994; Fazio, 1990; Greenwald, 1989). 동기에 따라서 정보처리를 대충하는가 치밀하게 하는가를 판단책략적-체계적 모형(heuristic-systematic model)으로 설명하는 Chaiken, Liberman, 및 Eagly(1989), 주변적 경로(peripheral route)와 중심적 경로(central route)로 설명하는 Petty와 Cacioppo(1986a, b)의 예는 동기와 인지의 관련성에 관한 한 가지 전형일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이전의 태도관련 연구결과들을 재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판단책략적 처리와 체계적 처리라는 구분은 지금 현재 동기-태도뿐 아니라 정서-사회적 판단 연구의 기본적 분석틀로 자리잡고 있다. 즉 Fiedler, Forgas 등 앞서 언급한 정서-인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는 정적 감정 - 판단책략적 처리, 부적 감정 - 체계적 처리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처리 모형은 또한 대인지각 모형(Brewer, 1988; Fiske, 1993)에도 채용되었다. 사실 태도변화든, 대인지각이든, 각종 사회적 판단에서 자신이 개입되지 않은, 남의 일 같은 문제는 대충 생각하고, 자신이 개입된, 자기 일인 문제는 치밀히 생각한다는 이 발상은 너무 단순해 보인다.

태도와 관련한 세 가지 자기-관련 동기로서 세계와 타인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동기(self-assessment), 자신의 중요한 신념, 태도를 방어, 고수하려는 동기(self-consistency), 타인에게 正的 인상을 주고 그 인상을 유지하려는 동기(self-enhancement)는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예컨대, Chaiken, Liberman, 및 Eagly, 1989; Smith, 1984; Swann, 1990)의 지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서, Katz(1960), Smith, Bruner, 및 White(1956)의 기능적 태도이론에서와 같은 다양한 동기를 다양한 인지적 측면과 연결시키는 것이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동기-인지의 틀 속에서의 태도 연구”로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Steele(1988, Steele & Liu, 1983)은 부조화 해결이 개인의 자존심 유지(그의 용어로는 self-affirmation)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즉 부조화 체험 직후에 부조화 내용과는 무관히 자존심을 높이는 처치를 받는 경우, 부조화에 의한 태도변화 현상이 사라짐이 밝혀진 것이다. Steele의 이 연구는 인지과정과의 연결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자기지각 이론에 맞서는 동기적 이론의 예로서, 진부터(예컨대, Aronson, 1969) 암시되어 오던 이 아이디어에 상당히 타당한 실험적 증거를 얻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밖의 사회심리학 영역 및 성격심리학 연구 경향

성취동기 영역에서, Trope(1975)는 Weiner(1980)와 함께 성취상황에서의 중간난이도 선호현상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 욕구에 기인한다는 인지적 해석을 주장한 바 있었다. 그는 중간난이도가 아니어도 능력에 대한 진단가(diagnostic value)가 높은 과제이면 진단가가 낮고 중간난이도인 과제보다 더 선호됨을 증거로 내세웠었다.⁶⁾ Trope(1986)는 최근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여, 성취행동의 목표로서 자신의 노력을 알기 위함(self-assessment goal) 이외에 자존심을 높이기 위함(self-enhancement goa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의 변화를 보였다.

사회비교과정(Taylor, Wayment, & Carrillo, 1996; Tesser, 1986, 1988), 상대적 박탈감(Olson & Hafer, 1996), 사회적 정체감과 내, 외집단 균질성(Haslam, Oakes, Turner, & McGarty, 1996), 권력관계와 편견(Fiske & Morling, 1996)에 동기-인지 관련 연구모형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Sorrentino & Higgins, 1986 참조).

성격심리학자들은 장, 단기적인 삶의 목표에 초점을 두어 개인을 이해하려는 모색을 시작하였다(Pervin, 1989). 목표노력(goal striving: Emons, 1989), 개인적 계획(personal project: Little, 1983), 가능한 자아(possible self: Cantor, Markus, Niedenthal, & Nurius, 1986; Markus & Nurius, 1986; Markus & Ruvolo, 1989) 등 비슷한 개념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Klinger(1977)와 Baumeister(1991)는 “삶의 의미”라는 포괄적인 동기개념을 통하여 개인을 이해하려 시도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Pervin, 1989 참조). 삶의 목표라는 개념은 Murray(1938)가 무의식적 욕구로서 주장하던 것들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동기-인지의 만남의 한 전형적 예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판단에서의 동기와 인지

사회인지현상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이론적 모색은 인지과정에 따라 동기과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경우(예컨대, Bargh, 1990; Gollwitzer, 1990)와 동기과정의 의하여 인지과정이 어떻게 영향받는가에 초점을 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Wyer와 Srull(1994a, b)로 마무리로 하고, 후자, 즉 동기가 사회적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관한 연구들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동기가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이론을 제안한 사람으로 Kruglanski(1989, 1990, Kruglanski & Freund, 1983), Kunda(1987, 1990), Pyszczynski와 Greenberg(1987; Pyszczynski, Greenberg, & Holt, 1985), Tesser(1986, 1988, Tesser & Campbell, 1983), 그리고 Zukier(1986; Zukier & Pepitone, 1984)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동기가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매우 포괄적인 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시하는 증거는 Kruglanski의 경우 자신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궁리한다는 태도의 이중처리 모형 수준의 결과뿐이며, Pyszczynski와 Greenberg, Kunda, 그리고 Tesser의 경우에는 동기가 판단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즉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내용을 믿으려 한다는 결과이며, Zukier를 비롯한 몇 연구자들은 동기가 인지적 책략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려는 경험적 시도를 보여주었다.

대중 생각하기와 꼼꼼히 따져보기: 정확성 동기

6) 사실 그의 진단가 조작에는 그 과제를 성취과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Kruglanski(1989, 1990, 1996; Kruglanski &

Freund, 1983.)는 최근, 귀인의 내용이나 차원이 아니라 귀인 및 사회적 추론의 동기에 관한 그의 '일상인의 인식론(lay epistemics)'이라는 이론으로, 사회인지의 제반 현상은 물론 모든 사회심리학적인 현상들(예컨대, 의사소통, 내집단 편애)을 설명하려는 의욕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 그의 이론은 지극히 단순하다. 추론을 간단히 끝내 치우려는 욕구(need for closure), 추론을 계속하려는 욕구(need to avoid closure)가 존재하며, 그 두 욕구는 판단의 결론이 특정 방향의 것인 경우와 불특정향(nonspecific) 경우에 각기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그러나, 결론이 불특정향 경우, 즉 정확성 동기의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이론은 앞에서 언급한 Chaiken 등(1989)의 판단책략적-체계적 처리, Petty와 Cacioppo(1986a, b)의 주변-중심경로라는 개념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Chaiken 등이 정보처리에 초점을 둔 반면 Kruglanski는 동기에 초점을 둔 것이 다를 뿐이다. Kruglanski 자신도 그의 개념이 "이전의 구분인 주변-중심, 혹은 판단책략-체계적 경로 구분과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과정"(Kruglanski, 1989, pp. 4-5)임을 인정하고 있다.⁷⁾ 시간 압력이 Kruglanski의 실험에서 need for closure의 조작이었으며, 평가에 대한 염려가 need to avoid closure의 조작이었다. 시간 압력을 받으면, 인상형성에서 초두효과가 나타나며 고정관념적 반응 경향성이 높다는 것이 그가 자신의 이론의 지지증거로 내세우는 것들이다. 이는 Chaiken 등(1989), Petty와 Cacioppo(1986a, b)의 지지결과들과 흡사하다. Kruglanski의 이론에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주목할 만한 것은, 아직 그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지 않지만, 특정 결론에 대한 판단의 욕구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은 판단자는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꼼꼼히 따져보지

만(unfreezing), 정확성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덜 중요한 문제는 대충 생각한다(freezing)는 것이다. Kruglanski에게 있어서 인지과정에 해당되는 개념은 판단동결(freezing)과 판단지속(unfreezing)인데, 그러나 아직은 설명개념일 뿐이다.

동기가 판단내용에 미치는 영향

Pyszczynski와 Greenberg(1987)는 귀인과정에서의 동기의 영향을 가설-검증 절차(hypothesis-testing sequence)라는 모델로 설명하려 하였다. 이들의 가정에 따르면, 이 절차는 가설 산출, 이 가설에 관련된 추론 규칙들의 선출, 정보탐색, 가설 평가, 정보평가로 되어 있으며 자존심에 대한 욕구, 인지적 일관성에 대한 욕구, 형평성에 대한 욕구 등 모든 종류의 동기가 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입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Pyszczynski, Greenberg, & Holt, 1985)에서 이들이 실제로 밝힌 것은 아직 정보평가에 동기가 영향을 준다는 것뿐이다. 즉 어떤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보다 그 검사의 타당도를 낮게 여긴다는 것이다. 모든 동기가 인지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 모델은 동기와 판단 관계에 관하여 심리학자들이 상정할 수 있는 막연한 꿈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가설이 입증되는지는 연구의 진척을 앞으로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Tesser(1986)는 자존심(그의 용어로는 self-evaluation)을 유지하려는 동기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우수한 성취를 이룩했을 때 (아마도 동일시에 의해) 스스로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데, Tesser는 이를 반영(reflection) 과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반영은 그 타인이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 또 한 측면에서 우리는 타인이 자신보다 우수하면 비교(comparison) 과정에 의하여 자존심에 손상을 입는다. 결국 반영과 비교

7) Kruglanski의 순간적인 동기개념을 가질적인 개념으로 바꾼 인과 애매성(casual uncertainty)은 개인차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Weary & Edwards, 1996).

는 정만대의 효과를 야기한다. Tesser는 반영과 비교의 두 과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타인과의 관계의 가까운 정도와, 비교되는 일이 자신에게 갖는 중요성의 정도를 들었다. 나에게 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동생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일에, 동생이 우수한 성취를 하였다면 나는 덩달아 우쭐해 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고 동생의 수행이 나를 능가하는 것이라면 나는 자존심이 손상당하게 되는 것이다.

Tesser는 일이 자신에게 갖는 관련성, 타인과의 가깝게 느끼는 정도, 그 일과 관련한 자기 정의의 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실험실 연구(Tesser & Campbell, 1980; Tesser & Paulhus, 1983)를 통해서, 그리고 형제간 및 부자간 관계를 묻는 설문자료(Tesser, 1980)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Tesser의 연구는 자존심 유지라는 동기에 의해서 반영과정과 비교과정이 영향을 받고, 타인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 일에 관련된 자기 정의 등의 인지내용이 결정됨을 밝힌 것이다. 이 이론에서의 반영과정이 인지과정인지는 분명치 않다. 사회적 비교과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지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비교대상 선정의 단계 등을 고려할 때 순수한 인지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Tesser의 이론은, 요컨대, 동기가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여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나, 논란되던 자존심-인지 관계에 관하여 치밀한 이론적 진전을 보인 점에서, 그리고 적어도 동기가 인지내용(자기 정의, 타인과의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론화한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Kunda(1990)는 동기에 의해 판단내용이 영향받음을 가장 잘 드러내 주었다. 결혼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데에 기여하는 개인적 조건에 관하여 판단할 때 여대생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조건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즉, 고등학생 시절 이성교제가 많았던 여대생은 바로 자신의 그러한 조건이, 그리고 고

등학교 시절 이성교제가 적었던 여대생은 바로 자신의 그러한 조건이 자신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했다(Kunda, 1987). 경영대학원에 진학할 학생들이 경영인으로서의 성공에 기여하는 개인조건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Kunda, 1987). 커피를 많이 마시는 여학생은 커피가 유방암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됨을 밝힌 연구결과를 덜 믿었다(Kunda, 1987). 즉 인과이론을 스스로 창안할 때, 그리고 인과이론을 평가할 때 동기가 영향을 주었다. 누군가와 같은 편이 되어 다른 편과 경쟁하게 될 때 자신의 파트너를 좋게 보았으며, 정신분열증 환자와 면담할 학생의 경우에는 그 면담을 관찰할 학생보다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편견이 감소했다(Klein & Kunda, 1992). 사람들은 달걀, 술 등 건강에 나쁜 식사 습관에 대한 자신의 빈도를 실제보다 적게 여겼다(Klein & Kunda, 1994).

그러나 Kunda와 그의 동료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향성 성격인 사람이 외향성인 사람보다 대학원 졸업후 더 성공을 한다는 허위 연구결과를 알려주었을 때 실험참가자들은 자신의 성격을 보다 내향적인 것으로 믿게 되었지만(물론, 외, 내향성을 거꾸로 제시해도 같은 결과), 그렇다고 한정없이 큰 차이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Kunda & Sanitioso, 1989). 위에 언급한 내향성-성공 정보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게 하면, 내향적 행동들이 많이 보고되었다(Sanitioso, Kunda, & Fong, 1990). 위에 소개한 결과들 중 나중 것들은, 동기-판단에 핵심이 되는 인지기제가 편파된 기억탐색(memory search)이라는 Kunda의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동기가 추론책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전 연구

Kunda(1990)는 소위 “동기에 영향받은 추론”(motivated reasoning)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동기의 영향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실험참가자들이 그 목표를 위해 어떤 [인지적] 규칙을 사용하고, 그 목표에 방해가 될 때는 그 규칙을 사용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 혹은 상반된 목표를 가진 실험참가자들이 복잡성 면에서는 같은 각기 다른 판단책략을 사용함을 밝히는 것”이 한 가지 숙제라고 결론지었다. Sanitioso와 Kunda(1991)는 이 숙제에 도전하였다. 그들은 大數의 법칙(law of large number: Kahneman & Tversky, 1973)에 속하는 한 원리, 즉 집합의 원리(aggregation principle: 사례수가 크면 예언력이 증가한다는 통계원리)의 사용여부가 동기에 의하여 영향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50 가지 운동을 모두 해야 하는 시험에 참가한 6명의 운동선수가 있다. 실험참가자들은 50 가지 운동의 기록 가운데 1 가지 운동의 기록을 보고 50 가지 운동 전체의 순위를 맞출 기회와 20 가지 운동의 기록을 보고 그 순위를 맞출 기회 중 한 가지를 택하도록 요구받고, 그리고 두 기회에서의 추정이 각기 얼마나 예언력이 있을지 평정하였다. 동기는 각 기록을 보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로 조작했다. 기대되는 결과는, 기록 보는 것이 번거로운 조건은 한 가지 기록을 보고 측정했을 때의 예언력이 20 가지 기록을 보고 추정할 때의 예언력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답하리라는 것이었다. 결과는 아주 예상 밖이었다. 이 논문의 두 실험 모두 정반대 방향의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결과가 얻어졌다. 동기에 따른 규칙 사용의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예상 밖의 방향으로의 차이이었으므로, Kunda (1990)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내세울만한 실험은 못되었다.

Ginossar와 Trope(1987)는 기저울

(Kanheman & Tversky, 1972b)의 사용여부가 동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지, 달리 말해서 기저울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유리할 때는 기저울의 사용이 증가하고, 불리할 때는 그 사용이 감소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들이 실험에서 사용한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어느 도시에 두 택시 회사가 있다. 한 회사는 그 도시의 택시 중 85%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회사의 택시들은 모두 푸른 색 페인트를 칠했다. 그 도시의 나머지 15%의 택시는 다른 회사 소속이었으며 초록색이었다(실험참가자의 반에게는 그 비율을 거꾸로 말해 줌). 어느 날 밤 한 택시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 증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초록색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사고당시의 조명상태에서 두 가지 색의 택시를 변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범원에서 검사하였는데, 성공확률은 80%이었다. 그 뺑소니 택시가 초록색일 확률은 얼마인가? 실험참가자들 중 일부에게는 자신을 초록색 택시회사측 변호사로 상상하도록 요구하였다. 변호사로 상상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은 실험참가자들의 반응은 이 문제에 접했을 때의 보통의 반응, 즉 기저울(두 가지 택시의 원래의 비율인 85%와 15%)을 무시하고 두 가지 색의 변별비율만 주로 고려된 반응을 나타냈다(이 실험결과에서는 75%정도). 그런데 초록색 회사의 변호사 입장이 되도록 요구받은 실험참가자들의 반응의 평균은 각기 43%(초록색 택시의 기저울이 15%인 조건)와 65%(초록색 택시의 기저울이 85%인 조건)이었다(p.27).

따라서 위의 결과는 기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기저울 15%의 변호사 조건)에는 기저울을 사용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저울 사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기저울 85%의 변호사 조건)에는 그냥 기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수준(75%정도)이 아닌 그보다 더 낮은 65%를 반응으로 보인 점을 고려하면, 실험참가자들이 무조건 유리한 방향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Ginossar와 Trope는 두 변호사 조건 실험

실험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으로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85% 기저율 조건에서의 답은 75%이었고, 15% 기저율 조건에서의 답은 56%이었다. 이 실험에서 주 관심대상인 15% 기저율 변호사 조건의 새 반응 56%는 상당히 애매한 결과이다. 이것은 변호사 역할에 있었을 때 이 조건의 답 43%는 이 조건의 모든 실험참가자들이 콧뜩히 생각하여 “정답”에 달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입장이 바뀐다고 이미 얻은 수학적인 “정답”을 바꿀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 자신도 “이 실험의 결과는 실험참가자들이 완전히 Bayes’ theorem으로 추론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기저율 사용이 새 문제에 일반화됨을 의미하지도 않음에 주의하라 (Ginossar & Trope, 1987, p. 470)”고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밝히고 있다. 변호사역 15% 기저율 조건의 일부 실험참가자들은 정답에 달하여 변호사역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 정답에 머물고, 그 조건의 나머지 실험참가자들은 유리한 쪽으로 우겨보는 식의 반응을 한 것인지, 즉 적어도 일부 실험참가자는 동기에 따라 판단책략 변화에 달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실험참가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반응한 결과인지는 실험참가자들의 원자료를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결과 해석상의 주의할 점으로 지적한 앞의 인용대목, 그리고 Bayes’ theorem이 원래 까다로운 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자의 해석이 옳지 않을까 싶다. 다음에 소개할 Zukier의 예를 보건대, 보다 쉬운 문제를 실험참가자들에게 부과하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Zukier(1986)는 사회적 판단이, 인지심리학의 자극속성 주도적 이론들과는 다른, 사회적 차원 속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차원이란 사회적 추론의 목적성, 맥락민감성, 그리고 행위연결적 속성을 의미한다. 그는 사회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심리적 자세를 설화지향(narrative orientation)이라 명명하고, (비사회적인) 논리적 문제해결의 준비자세를

범례지향(paradigmatic orientation)이라 명명하였다. 그는 Kahneman과 Tversky(1973)의 기저율 오류는 실험참가자들이 설화적 지향으로 문제를 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Kahneman과 Tversky가 주장하듯 통계적 지식 적용을 못하기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Zukier와 Pepitone(1984)은 두 실험조건 중 한 조건에게 범례지향(과학자 입장), 다른 한 조건은 설화지향(임상심리학자 입장)의 지시문을 주고 Kahneman과 Tversky(1973)의 과제(70% 기술자, 30% 변호사 전집에서 몇 명을 표집하여 각 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가 어느 직업 소유자인지 맞추게 하기)를 실시하였다. 범례지향조건의 실험참가자들이, 주어진 사례가 어느 직업을 의미하는지 애매한 경우, .31의 반응을 보임이 발견되어 가설이 지지되었다(설화지향조건의 실험참가자들은 .42). 그들은 또한 이 두 지향이 상황에 따라 같은 개인에게 취해질 수 있음을 피험자내 설계의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같은 논문의 다른 실험에서는, 범례지향이 일상화된 사람들로 가정되는 대학병원 수련의와 설화지향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의대 1년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두 지향이 각기 생활화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Zukier의 생각은 사회적 판단연구에 관하여 많은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판단에서의 논리선택이 어떤 동기적 측면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동기가 인지적 책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

동기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1) 한 가지 인지적 규칙의 사용 여부가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과 (2) 상반된 목표를 가진 실험참가자들이 그 목표에 따

라 (난이도가 비슷한) 두 인지적 규칙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현상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Kunda, 1990). Zukier와 Pepitone(1984)의 연구가 해결한 것은 이 두 숙제 중 첫 번째 것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안신호(안신호, 문지혜, 및 권오식, 1994; 안신호와 김상우, 미발표)는 위의 Kunda가 제기한 두 과제 중 두 번째 것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었다.

두 인과규칙(차이법 대 상호작용 논리)과 동기

안신호 등(1996)은 두 인과추론 규칙, 즉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과 상호작용적 논리를 취급하였다. 차이법은 J. S. Mill(1872/1919)이 ‘실험적 탐구의 네 가지 방법’으로 열거한 것 중 하나이다. 이 네 가지 방법은 일치법(method of agreement), 차이법, 잔여법(method of residues), 量共變法(method of concomitant variation)인데, 이 규칙들은 같은 수의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발생 자료들을 보고, 어느 선행사건이 어느 후행사건과 짝을 이루는가를 결정짓는 데 적용된다.

차이법은 두 계열의 사건패턴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나는 (즉, 한 계열에서는 함께 발생하였으나 다른 계열에서는 함께 발생하지 않는) 요소들끼리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즉,

- (1) 선행사건 A, B, C → 후행사건 α , β , γ
- (2) 선행사건 B, C ----> 후행사건 β , γ

의 자료에서, A와 α 가 발생여부에 있어 두 사건 계열간에 차이를 보이므로 ‘결과 α 의 원인은 A이다’ 라는 추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잔여법은 여러 선행사건 중 하나를 제외한 각 요소가 여러 후행사건 중 하나를 제외한 각 요소와 각기 짝을 이루면, 나머지 선행사건과 나머지 후행사건이 짝으로 추론됨을 의미한다. 즉,

- (1) 선행사건 A, B, C → 후행사건 α , β , γ

- (2) 선행사건 B ----> 후행사건 β

- (3) 선행사건 C ----> 후행사건 γ

의 자료에서 (2), (3)을 통하여 짝을 이루지 않은 것은 A와 α 이므로 ‘결과 α 의 원인은 A이다’ 라고 추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Mill 스스로 인정하듯이, 잔여법은 차이법의 일종이므로 앞으로의 기술에는 “차이규칙”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그런데, Mill의 규칙들은 실험의 주효과만이 있는 경우에만 타당하며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경우의 추론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안신호 등(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특징은 차이법으로도 답을 얻을 수 있고 상호작용 논리로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들에게 답과 함께 그 이유를 쓰도록 요구함으로써, 유리한 내용의 답을 무조건 취하는 경향성이 배제된 자료를 얻으려 하였다.

실험참가자는 과제를 제시받기 전에 두 실험협조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명 중 한 명은 실험참가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한 명은 매우 부적(통제 조건에서는 두 협조자가 모두 약간 우호적) 태도를 보여, 어떠한 응답(실험참가자에게 정적 태도를 보인 실험협조자의 응답)이 다른 응답(실험참가자에게 부적 태도를 보인 실험협조자의 응답)보다 더 옳으리라고 실험참가자가 생각하도록 동기를 유도하였다. 이는 Kruglanski가 “특정 결론”에 대한 need for closure라 명명한 것, 그리고 Kunda가 방향적 목표(directional goal)라 명명한 것에 해당된다.

문제는 부작용 없는 새 위장약을 개발하기 위해 가능성있는 요소 A, B, C의 모든 조합(일곱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조합의 약물 투여 실험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제시한 네 가지 조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요소 A, B, C --> 치료효과, 부작용(변비), 부작용(여드름)
- (2) 요소 A, C ----> 부작용(변비),

부작용(여드름)

(3) 요소 C -----> 부작용(변비)

(4) 요소 A -----> 부작용(여드름)

실험자는 실험참가자에게 이 연구에서는 단답식 응답형식과, OX 및 설명식 응답 방식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하고 (두 협조자는 단답식 조건, 실험참가자는 OX 및 설명식 조건에 할당되었다고 일러줌), 두 협조자가 단답식으로 쓴 답 중 어느 답이 옳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쓰게 하였다. 협조자들은 'B액기스만을 투여하면 부작용 없는 위궤양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약물 연구진들의 잠정적 결론에 대한 의견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험참가자가 받은 두 협조자의 의견은 각기 "확실히 옳습니다"(차이법에 근거한 답)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상호작용 논리에 근거한 답)이었다.

안신호 등(1994)의 두 실험의 결과는 실험참가자들이 어느 인과 논리를 선택하는지가 방향적 목표(Kunda, 1990)에 의하여 결정됨을 즉, 차이법에 근거한 답에 목표가 주어진 실험참가자들은 차이법 논리를, 그리고 상호작용 논리에 목표가 주어진 실험참가자들은 상호작용 논리를 사용함을 실험참가자들이 지지한 답과 그 답을 택한 이유의 분석을 통해 밝혔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두 인과규칙은 Kunda(1990)가 언급한 "난이도가 비슷한 두 인지적 규칙"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자료를 보았을 때 차이법이 우선적으로 떠오르고, 상호작용 규칙은 차이법 논리에 의한 답을 이미 알고 나서 더 궁리하여 달하게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상호작용 논리를 적용한 답을 지지한 많은 실험참가자들의 응답지에는 "A 액기스는 여드름, B 액기스는 변비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물에는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띄여 있었다.

안신호 등(1994)의 연구는, 적어도, 특정 결론에 대한 동기(Kunda의 이른바 방향적 목표)에 의하여 한 추론 규칙(상호작용 논리)의 사

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Ginossar와 Trope(1987)의 피고측 변호사역의 실험참가자에게는 "나를 고용한 회사의 택시는 뽕소니차가 아니다"라는 특정 결론에 대한 선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Ginossar와 Trope(1987)의 실험에서의 종속 측정치는 원하는 결론 자체를 되물은 것이었을 뿐, 실험참가자가 정말 특정 추론 규칙을 사용하였는지를 직접 탐지하는 것이 못 되었다. 그 실험에서 정말 실험참가자가 원하는 결론에 달하기 위한 특정 추론 규칙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지표는 피고측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해보라는 후속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 답이 바뀌지 않는가라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지 아니었다. 안신호 등(1994)의 연구는 차이법과 상호작용 논리라는 두 논리 중 어느 것을 사용한 것인지, 달리 말해서, 상호작용 논리에 달했는지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지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범주화의 두 규칙(AND규칙 대 OR규칙)과 동기

안신호와 김상우(미발표)는 "난이도가 비슷한" 두 규칙으로서 범주화의 합집(AND)규칙과 이집(OR)규칙에 착안하였다. 식물을 범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생물체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있는 장소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 AND 규칙을 사용한 것이고, "일년생 혹은 다년생"으로 규정하면 OR 규칙을 사용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규칙 중 AND 규칙이 OR 규칙보다 용이하여 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Bourne, 1974; Bruner, Goodnow, & Austin, 1956; Medin, Wattenmaker, & Michalski, 1987), 이 문제점은 과제에 동원되는 각 자극 요소들의 특출성을 조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안신호와 김상우(미발표)의 첫 실험에서 동기는 제시될 자료가 나체를 담고 있는가로 조

작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은 먼저 AND 규칙과 OR 규칙을 설명하는 인쇄물을 제공받았다. AND 규칙의 설명시에는 A, B에 각기 세 개의 그림을 제시하되, A에는 검은 색 타원이 하나씩 있는 그림 두 개와 검은 색 원이 하나 있는 그림을, 그리고 B에는 검은 색 원 두 개, 흰색 원 하나, 흰색 원 두 개가 있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형이 모두 검은 색이며 동시에 개수가 한 개이면 A 집단, 그 밖의 것들은 B 집단”이라는 기준이 A, B 두 범주를 구분하는 정의로서 타당한데 이렇게 “- -이며 동시에 -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을 AND 규칙적 사고라 한다고 설명하였다. OR 규칙의 설명시에는 A 범주에 검은 사각형, 검은 원, 그리고 흰 삼각형이 각기 한 개인 세 그림을, B 범주에는 흰 원 두 개인 그림 둘, 흰 원 한 개인 그림을 제시하고, “도형이 검은 색이거나 또는 삼각형 모양이면 A 집단, 그 밖의 것들은 B 집단”이라는 기준이 A, B 두 범주를 구분하는 정의로서 타당한데, 이렇게 “- - 이거나 또는 -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을 OR 규칙적 사고라 부른다고 설명하였다. 두 규칙의 설명순서는 이 실험의 한 독립변인이었는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규칙의 설명이 끝난 후, 두 장의 검사지를 배부하였다. 여덟 여자가 네 사람씩 A, B 두 줄로 서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A 범주의 사람들의 범주정의를 답하게 하는 과제이었다 (“_____이면 A 집단, 그 밖의 것들은 B 집단”이라는 글을 그림 밑에 제시하고 공란에 답을 쓰게 함.) 두 번째 장에는 여섯 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그 중 앞장의 답란에 적은 기준에서 A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나체 여부 외에 안경, 구두의 리본, 팔찌, 목걸이 각각의 여부가 범주화를 위해 세부특징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속성들이었다. 비교집단이 받은 그림은 실험집단이 제시 받은 그림을 복사한 것이었는데 단지 각 나체의 목, 손목, 발목, 허리에 선을 그어 몸에 꼭 끼는 옷을 입은 모양으로 보이게 한 점만 달랐다.

다. AND 규칙 유도조건과 OR 규칙 유도조건 역시 제시된 그림으로 조작되었다. AND 규칙 유도조건에게 제시된 문제의 정답으로는 “나체 이면서 (꼭 끼는 옷을 입고) 동시에 팔찌를 착용하고 있으면 A 집단, 그 밖의 것들은 B 집단”이라는 답과 “안경을 끼었거나 리본이 있는 구두를 신었으면 A 집단, 그 밖의 것들은 B 집단”이라는 답의 두 가지가 가능하였다. OR 규칙 유도조건에서의 두 정답은 “나체이거나 (꼭 끼는 옷을 입었거나) 목걸이를 착용했으면 A 집단, 그 밖의 것들은 B 집단”과 “안경을 끼고 동시에 리본 있는 구두를 신었으면 A 집단, 그 밖의 것들은 B 집단”이었다. 나체(혹은 꼭 끼는 옷)와 짝지어 쓰인 세부특징이 AND 규칙 유도 조건에서는 팔찌인 반면, OR 규칙 유도조건에서는 목걸이인 이유는 AND 규칙이 OR 규칙보다 많이 쓰이기 때문이었다(Bourne, 1974; Bruner 등, 1956; Medin 등, 1987).⁸⁾

결과는 ‘나체’라는 세부특징이 AND 규칙의 세부특징으로 쓰였을 때는 AND 규칙이, OR 규칙 범주화의 세부특징으로 쓰였을 때는 OR 규칙이 많이 사용됨을 보여 주었다. 나체라는 세부특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AND 규칙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AND 규칙 유도조건)에는 21 명 중 20 명(95%)이 AND 규칙을 사용하였으나, 그 나체 그림이 몇 개의 선으로 ‘꼭 끼는 옷’을 입은 여자 그림으로 바뀐 경우에는 19 명 중 10 명(53%)만이 AND 규칙을 사용하였다. 나체라는 세부특징을 동원하여 범주화하기 위하여 OR 규칙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7 명 중 11 명(65%)이 OR 규칙을 사용한 반면, 그 나체 그림이 몇 개의 선으로 ‘꼭 끼는 옷’ 입은 여자 그림으로 바뀐 경우에는 21 명 중 6 명(29%)만이 OR 규칙을 사용하였다.⁹⁾

8) 눈에 잘 띄는 목걸이를 AND규칙 유도 조건의 정답에 동원되는 한 세부특징으로 하는 경우 (예비실험 결과) “나체 AND 목걸이” 문만 아니라 “꼭 끼는 옷 AND 목걸이”의 답도 천정효과 수준의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팔찌를 OR규칙 유도조건의 정답에 동원되는 한 세부특징으로 하는 경우에는 “꼭 끼는 옷 OR 팔찌”는 물론 “나체 OR 팔찌”의 반응율도 아주 낮았다.

이 실험에 사용된 여자 그림 중 나체(혹은 꼭 끼는 옷)가 아닌 그림의 여자는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있었다.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이 '몸에 꼭 끼는 옷'이라는 세부특징의 특출성을 너무 낮추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번째 실험에서는 나체가 아닌 경우 꼭이 넓은 반치마와 소매가 넓은 반소매 윗도리로 바꾸어 실험하였다. 결과는 마찬가지이었다. 앞 실험에서 결과가 덜 강력했던 OR 규칙 유도 조건만을 실험하였는데, 나체가 세부특징이었을 때는 56%(16 명 중 9 명), 꼭 끼는 옷이 세부특징이었을 때는 19%(16 명 중 3 명)만이 OR 규칙을 사용하였다.

이 두 실험의 결과는 동기에 의하여 두 추론 규칙 중 하나가 선택되는 현상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이 하나의 추론 규칙의 사용여부를 다루었을 뿐, 두 추론 규칙 중 어느 것이 선택되는지를 다루지 못했던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로서 의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실험이 특정 결론에 대한 동기(Kunda의 방향적 목표, directional goal)가 인지적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적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만약 이 실험의 참가자들에게서 추론규칙의 선택 이전에 특정 결론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고 상정한다면, 그것은 "나체를 포함한 내용의 결론"에 대한 선호라 할 터인데, 그것은 무리일 것이다.

특정 결론에 달하기 위해 인지적 책략이나 논리가 선택될 때, 그 특정 결론은 제시된

특정 자극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카페인에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에 접하여 "저 연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선호되는 경우 그 연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지지할만한 정보(그 연구의 방법상의 약점 등)를 탐색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 논리 혹은 특정 인지적 책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론의 선호가 먼저 있고 그 후 그 결론을 위한 정보와 인지적 책략 선택이 뒤따르는 경우이다. '그 차는 트렁크가 넓다'는 자극 속성이 "그 차는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을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 '트렁크가 넓은 차'라는 자극 속성이 판단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차는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달하기 위하여 특정 논리가 동원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러한 판단과정을 거쳐 그 결론에 달했다면, 이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가 결론과 인지적 책략 선택을 결정한 것이다. 나체라는 자극 속성과 범주화 논리 선택에 관한 두 실험의 경우, 선호되는 결론이 논리 선택 전에 미리 상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나체라는 정보에 계속 매달리게 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판단을 진행하는 중에 그 정보와 더불어 활용할 정보와 논리가 결정되고 그 결과 모종의 결론에 달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동기와 인지적 책략 선택과의 관계에서, 자극, 결론 선택, 인지적 책략 선택, 정보 선택의 순서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형적 사회주의자는 제반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답을 변증법적 논리를 통하여 얻으려 하는 것 같다. 안신호와 김상우(미발표)의 세 번째 실험은 특정 결론에 대한 선호, 혹은 그 결론에 동원될 특정 정보에 대한 선호(안신호와 김상우의 앞의 두 실험은 이에 해당된다)를 동기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특정 추론 규칙 자체의 선호를 유도하는 경우, 전형적 사회주의자의 변증법 사용의 경우처럼, 그 추론 규칙

9) 이 실험은 나체라는 자극으로 유도한 규칙이 'AND 규칙 유도'인 조건과 'OR 규칙 유도'인 조건 각기, 2 (규칙 설명 순서: 'AND 규칙 먼저' 대 'OR 규칙 먼저') X 2(나체 여부: '나체' 대 '꼭 끼는 옷')의 설계로서, 각 조건에 11 명씩 88 명의 남자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규칙 설명 순서 요인의 효과는 없었다. 유도한 규칙과 나체 여부의 두 요인의 네 조건 당 피험자 22 명 중 분석에서 누락된 자료는 주로 엉뚱한 오답, 혹은 본 연구에 부적절한 답, 예컨대, "a OR (b AND c)" 형식의 답("안경을 썼거나, 팔찌를 하고 동시에 머리가 긴 - - -" 등)을 적은 경우들이었다. 극소수 실험참가자는 문제의 두 정답, 즉 AND 규칙에 의한 답과 OR 규칙에 의한 답을 모두 적었는데 이들 자료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의 사용이 증가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세 번째 실험에서는 두 범주화 규칙 중 어느 한 쪽 규칙이 바람직하다고 믿게 실험참가자들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동기유발 방법을 택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 우선 두 범주화 규칙에 관하여 알려주고 (앞의 두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절차), 왜 심리학자들이 이 규칙에 대한 연구를 하는지 알려준다는 구실로, 두 규칙 중 한 규칙은 아주 바람직한 성격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매우 나쁜 성격과 관련성이 많다는 이론이 심리학계에 정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¹⁰⁾ 해결할 추론 과제는 기하학적으로 5개씩을 A, B 범주로 제시하고 앞의 두 실험에서와 같이 A, B 두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범주의 세부특징으로는 도형의 모양(원, 세모, 네모), 수, 색(흑백), 도형을 둘러싼 직사각형의 테두리선의 수가 사용되었다. 범주정의의 응답이 끝난 후 문제지(답란은 문제지 하단에 있었음)를 회수하고, 설문지를 주어 앞의 문제지에 자신이 쓴

답이 어떤 “사고방법”(실험참가자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했음)의 것인지, 과제를 하기 전 특정 사고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결정했는지, (미리 결정했다면) 언제었는지, (미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왜 그러한 답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지에 쓴 답 이외에 다른 답이 가능함을 생각했는지, (생각했다면) 무엇인지를 물어 답하게 하였다.

80 명의 실험참가자 중 19 명은 분석 불가능한 답¹¹⁾으로, 4 명은 실험목적에 눈치채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57 명 중 45 명(79%)이 유도된 범주화 규칙의 답을 썼다. 그런데 이 57 명 중 5 명은 다른 또 하나의 답을 알고 있었고 추후 설문지에 정확히 그 답을 썼다. 응답시의 반응편파를 보인 이 5 명을 제외한 52 명 중 유도된 범주화 규칙의 답을 쓴 실험참가자는 40 명(75%)이었다. 이 52 명 중 미리 특정 범주화 규칙을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문제해결에 응했다고 보고한 학생은 18 명이었다. 이들을 추가로 제외한 34 명 중에서는 23 명(68%)이 유도된 규칙을 사용하였다.

두 답을 다 인지하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답만을 추론 과제의 답란에 적은 5명은 분명한 반응편파의 경우로서 무시함이 옳을 것이다. 이 실험에서 어떠한 논리를 미리 선호하여 그 논리의 사용을 작정하고 문제에 접한 18 명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변증법으로 접근하여 답을 얻고자 하는 사회주의자와 비슷하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당면하여 빨리 답을 얻고자 하는 경우(즉 Kruglanski의 이른바 ‘need for closure’의 상태가 된 경우), 우리는 단순한 논리, 즉 주변통로(Petty & Cacioppo, 1986a, b) 혹은 대중의 책략(heuristic; Chaiken 등, 1989)을 사용하리라고 미리 작정할 수 있다. 반면, 중요한 문제에 당면하여 Kunda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이 흔히 정확목표(accuracy goal)라 부르는 상태(당면한 문제가 그 개인에게 중요한 것인 경우에 유발되는 ‘정

10) 이 조작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확정되었다. 어떤 추론 규칙이 (남학생에게) 지도력, (여학생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성격”과 관련된다는 수준의 통상적 지시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다. 유도된 범주화 규칙은 창의성, 높은 성취동기, 뛰어난 판단력 등등의 바람직한 성격과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칙을 쓰는 사람은 “이성간의 관계에서는 순간의 열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정확한 판단력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성을 선택하여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성숙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만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다른 쪽의 규칙을 쓰는 유형의 사람은 “배사에 -- 산만(혹은 편협)하[며],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적인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최근 미국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은 AIDS 감염자 중 -- 형 사고자들이 많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학자들은 -- 형 사고 유형의 사람들에서 AIDS 환자가 많은 것이 -- 사고 유형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뇌의 시상하부 영역의 뇌파가 매우 강하고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가 과다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러한 정보를 그럴 듯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AND 규칙 유도조건의 실험참가자에게는 AND 규칙 사용자는 집중형 사고자, OR 규칙 사용자는 산만형 사고자라고도 부른다고 하였고, OR 규칙 유도조건의 실험참가자에게는 AND 규칙 사용자는 편협형 사고자, OR 규칙 사용자는 확산형 사고자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

11 주 8 참조

확한 판단을 하려는 동기')가 된 경우에는 중심 통로, 혹은 체계적 처리의 인지과정을 동원할 것을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택하여 지는 구체적 책략은 당면한 문제에 어떤 책략이 적합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Showers와 Cantor(1985), Smith(1994)는 동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책략이 선택될 수 있으리라고 상정하였다. 자기통제 책략>Showers & Cantor, 1985), 스트레스 대처 책략, 성취상황에서의 책략(Smith, 1994) 등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들을 인지적이라고 부른다면, "인지"라는 용어의 인플레이션적 사용(Kuhl, 1986)일 수 있다. 그러나 가설확인 책략(Smith, 1994), 절감원리의 사용과 같은 책략은 보다 인지적인 것이며, 동기적 맥락과 해결할 문제의 성질에 따라 이러한 책략의 의식적 선택은 가능한 일이다.

안신호와 김상우(미발표)의 마지막 실험에서 동기적 편파를 보인 학생 모두가 사용할 추론 규칙을 미리 정한 것은 (적어도 그들의 설문지 응답에 의하면) 아니었다. 그 실험에서 끝으로 남는 문제는, 따라서, 스스로 특정 규칙 사용을 미리 작정하지 않은 실험참가자들(23 명)에서 나타난 동기의 효과라고 하겠다. 이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용할 규칙을 미리 정했는가에 대하여 실험참가자들이 솔직하게 답했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의 두 실험에서 동기는 범주화 규칙으로 묶을 두 세부특징 중 하나로 나체를 선택하는데에 동기가 영향을 미치고, 나체를 한 세부특징으로 한 결론(범주정의)을 궁리하는 중에 부산물로 특정 범주화 규칙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신호와 등(1994)과, Ginosaar와 Trope(1987), 그리고 Sanitioso와 Kunda(1991)의 연구에서는 특정 결론에 대한 방향적 목표가 먼저 설정되고, 그 결론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가 차후에 선택되었었다. Zukier와 Pepitone(1984)의 연구에서는 방향적 목표는 분

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각 지향별로 정확목표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안신호와 김상우(미발표)의 마지막 실험의 결과 중 특정 규칙의 사용을 미리 결정하지 않은 실험참가자들에게서 나타난 동기의 효과가 요구특성이나 실험참가자의 반응편파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주 새롭고 놀라운 현상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인지적 규칙의 사용 여부를 결정지은 것은, 특정내용의 결론과는 무관하게, 그 인지적 규칙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인지적 규칙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기에 의해 저절로 사용하게 된다면, 동기가 인지작용에 미치는 힘은 상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어찌면 변증법을 사용하는 사회주의자가 항상 변증법 사용을 사전에 의도하고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변증법은 타당한 결론에 달하게 한다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거의 습관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변증법을 사용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가능성이, 그러나, 안신호와 김상우(미발표)의 이 결과의 요구특성 혹은 반응편파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기다려 보아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겨야 할 것이다.

결론

앞에서는 주로 196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의 사회심리학의 변모를 살펴보고, 그것이 최근의 변화에 어떤 연결을 갖는지 이해해보려 했다. 그리고, 동기가 인지, 특히 사회적 판단에 갖는 영향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앞으로 연구할 문제들을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해 온 인지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에 중요한

인지개념들을 개발하고, 인지심리학자들에게 자극을 줄 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기와 사고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Smith(199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출발단계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인지에서 인지적인 것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동기적 접근을 시도해 볼직하다. 예를 들어 자극의 생생함(vividness), 특출성(salience)은 사회인지의 핵심개념 중 하나이었다(Fiske & Taylor, 1984, 1991, Nisbett & Ross, 1980). 자극의 생생함, 특출함이란, 자극이 구체적이고, 튀고, 움직이고, 다른 것들과 다르고 한 것들이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흥미를 끄는 것이다(Nisbett & Ross, 1980). 사실, 생생한 것들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흥미를 당기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왜 우리의 흥미를 끄는가? “생생하기 때문에” 라는 답은 동어반복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끈다고 보아야 한다. 왜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만약 이렇게 물어간다면, 우리는 생생함을 동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판단책략(heuristic)들은 동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근본적 귀인 오류는 인간이 주로 “그것”을 알고 싶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한다는 측면에서 동기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상황보다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따라서 극히 정보가 제한된 경우 “그 사람”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설령 나중에 오류임이 밝혀지더라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통계적 오류를 인간의 엉성한 이성의 증거로 삼는 것에도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절실한 얇은 통계에 입각한 추리가 아니다. 길 잃은 아이를 찾는 부모에게는 대수의 법칙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구체적인 사람의 인상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닐 것이다. 똑같은 무게의 정보가

A를 지지하는 것 몇 개, B를 지지하는 것 몇 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다. 99 명의 아이가 “가” 길로 가고 단 한 명의 아이가 “나” 길로 갔다 하더라도 “나” 길로 간 아이가 내 자식을 닮았다면 나는 “나” 길을 추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99/100의 확률로 찾을 뻔하다가 결국 못 찾은 것은 내 아이를 100% 잃어버리는 것이며, 통계규칙은 자식을 둔 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각종 인지적 편파를 범하며 사는 것을 밝히는 것과 인간이 동기적 편파를 범하며 사는 것을 밝히는 것 중 어느 것이 인간의 상호이해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인간이 동기적 편파를 범하며 산다는 것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로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타인들도 동기적 편파를 범한다는 지혜는 나의 욕심에 기인한 판단을 되돌이켜 수정할 수 있고 타인의 판단의 이유, 그 판단이 그 사람에게 갖는 의미를 헤아리게 해주므로 타인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자는 우리의 지식의 가치에 대하여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론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중 (1993). 자극의 감정가가 정보처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 (1980a). 감정-이타행동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I): 인지론적 가설.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논문집**, 19, 473-495.
- 안신호 (1980b). 감정-이타행동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II): 동기적 접근.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16, 39-57.
- 안신호 (1983). 비애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

- 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 김상우 (미발표). 범주화 추론규칙 선택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
- 안신호, 문지혜, 권오식 (1994). 동기가 인과추론규칙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 132-149.
- 이흥철 (1993). 정서상태가 기억수행 및 주의편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흥철 (1995). 정서와 인지.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 조은경 (1994). 사회심리학의 최근 동향: 동기와 정서의 복귀. **1994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심포지움: 심리학의 최근 동향**.
- Abelson, R. P., Aronson, E., McGuire, W. J., Newcomb, T. M., Rosenberg, M. J., & Tannenbaum, P. H. (Eds.). (1968).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 Chicago: Rand McNally.
- Aronson, E. (1969). The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A current Perspective.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 pp. 2-32). New York: Academic Press.
- Bargh, J. A. (1990). Auto-motives: Preconscious determinants of social interac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93-130). New York: Guilford.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 Bem, D. J. (1965). An experimental analysis of self-persua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199-218.
- Bem, D. J. (1967). Self-perception: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cognitive dissonance phenomena. *Psychological Review*, 74, 183-200.
- Bourne, L. E. Jr. (1974). An inference model of conceptual rule learning. In R. Solso (Ed.), *Theories in cognitive psychology*. Washington, D. C.: Erlbaum.
-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Brewer, M. B. (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In T. K. Srull & R. S. Wyer, Jr. (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1. pp. 1-36). Hillsdale, NJ: Erlbaum.
- Bruner, J. S., Goodnow, J. J., Austin, G. A. (1956). *A study of thinking*. New York: Wiley.
- Bruner, J. S., & Tagiuri, R. (1954). The perception of people. In G. Lindzey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634-654). Reading, MA: Addison-Wesley.
- Cantor, N., & Kihlstrom, J. F. (Eds.). (1981). *Personality, cognition, and social interaction*. Hillsdale, NJ: Erlbaum.
- Cantor, N., Markus, H., Niedenthal, P., & Nurius, P. (1986). On motivation and the self-concept.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96-121). New York: Guilford Press.
- Chaiken, S., Liberman, A., & Eagly, A. H.(1989). Heuristic and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within and beyond the persuasion context.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 212-252). New York: Guilford Press.

- Clark, M. S., & Fiske, S. T. (Eds.). (1982). *Affect and cognition: The 17th Annual Carnegie Symposium on Cogni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 H., & Chaiken, S. (1994). *The psychology of attitude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Emmons, R. A. (1989). The personal striving approach to personality. In L. A. Pervin (Ed.),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87-126). Hillsdale, NJ: Erlbaum.
- Fazio, R. H. (1990). Multiple proces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The MODE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3, pp. 75-110). New York: Academic Press.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edler, K. & Forgas, J. (Eds.). (1987). *Affect,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Lewiston, NY: Hogrefe.
- Fiske, S. T. (1989). Examining the role of intent: Toward understanding its role in stereotyping and prejudice.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 253-283). New York: Guilford Press.
- Fiske, S. T. (199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55-194
- Fiske, S. T., & Morling, B. (1996). Stereotyping as a function of personal control motives and capacity constraints: The odd couple of power and anxiety.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 Vol. 3. The interpersonal context* (pp. 323-346). New York: Guilford.
- Fiske, S. T., & Taylor, S. E. (1984). *Social cogni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Forgas, J. P. (1991). (Ed.). *Emotion and social judgment*. Elmsford, NY: Pergamon.
- Ginossar, Z., & Trope, Y. (1987). Problem solving in judgment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464-474.
- Gollwitzer, P. M. (1990). Action phrase and mind-sets.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53-92). New York: Guilford.
- Gollwitzer, P. M., Earle, W. B., & Stephan, W. G. (1982). Affect as a determinant of egotism: Residual excitation and performance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02-709.
- Greenwald, A. G. (1989). Why attitudes are important: Defining attitude and attitude theory 20 years later.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p. 429-440). Hillsdale, NJ: Erlbaum.
- Haslam, S. A., Oakes, P. O., Turner, J. C., & McGarty, C. (1996). Social identity, self-categorization, and the perceived homogeneity of ingroups and outgroups: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 motivation and cogni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3. The interpersonal context* (pp. 182-222). New York: Guilford.
- Hastorf, A. H., & Isen, A. M. (Eds.). (1982). *Cognitive social psychology*. New York: Elsevier North-Holland.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iggins, E. T., Herman, C. P., & Zanna, M. P. (Eds.). (1981). *Social cognition: Vol. 1. The Ontario symposium*. Hillsdale, NJ: Erlbaum.
- Higgins, E. T., & Sorrentino, R. M. (Eds.). (1990).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Vol 2). New York: Guilford Press.
- Isen, A. M., & Levin, P. F. (1972). Effect of feeling good on helping: Cookies and di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384-388.
- Isen, A. M., Shalcker, T. E., Clark, M. S., & Karp, L. (1978). Affect, accessibility of material in memory and behavior: A cognitive loo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2.
- Izard, C., Kagan, J., & Zajonc, R. B. (Eds.). (1984).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E. E., Davis, K. E., & Gergen, K. J. (1961). Role playing variations and their informational value for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302-310.
- Jones, E. E., Kanouse, D. E., Kelley, H. H., Nisbett, R. E., Valins, S., & Weiner, B. (Eds.). (1972).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ahneman, D., & Tversky, A. (1972a). On prediction and judgement. *ORI Research Monograph*, *12*.
- Kahneman, D., & Tversky, A. (1972b). A subjective probability: A judgement of representativeness. *Cognitive Psychology*, *3*, 430-454.
- Kahneman, D., & Tversky, A. (1973). On the psychology of prediction. *Psychological Review*, *80*, 237-251.
- Kahneman, D., Slovic, P., & Tversky, A. (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z, D.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63-204.
- Kelley, H. H., & Michela, J. L. (1980).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457-501.
-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ity constructs*. New York: Norton.
- Klein, W. M., & Kunda, Z. (1992). Motivated person perception: Constructing justifications for desired belief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 145-168.
- Klein, W. M., & Kunda, Z. (1994). Exaggerated self-assessment and the preference for controllable risk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9*, 410-427.
- Klinger, E. (1977). *Meaning and void: Inner experience and the incentives in people's liv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ruglanski, A. W. (1980). Lay epistemo-logic-process and contents:

- Another look at attribution theory. *Psychological Review*, 87, 70-87.
- Kruglanski, A. W. (1989). *Lay epistemics and human knowledge: Cognitive and motivational bases*. New York: Plenum Press.
- Kruglanski, A. W. (1990). Motivations for judging and knowing: Implications for causal attribu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333-368). New York: Guilford Press.
- Kruglanski, A. W. (1996). A motivated gatekeeper of our minds: Need-for-closure effects on interpersonal and group processes.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3. The interpersonal context* (pp. 465-498). New York: Guilford.
- Kruglanski, A. W., & Freund, T. (1983). The freezing and unfreezing of lay-inferences: Effects on impression primacy, ethnic stereotyping, and numerical anch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448-468.
- Kuhl, J. (1986). Motiv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A new look at decision making, dynamic change, an action control.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404-434). New York: Guilford.
- Kunda, Z. (1987). Motivated inference: Self-serving generation and evaluation of causal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36-647.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Kunda, Z., & Sanitioso, R. (1989). Motivated changes in the self-concep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272-285.
- Leventhal, H., & Tomarken, A. J. (1986). Emotion: Today's probl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7, 565-610.
- Lewin, K., Dembo, T., Festinger, L., & Sears, P. S. (1944). Level of aspiration. In J. McV. Hunt (Ed.), *Personality and the behavioral disorders* (Vol. 1). New York: Ronald Press.
- Little, B. R. (1983). Personal projects: A rationale and method for investigation. *Environmental Behavior*, 15, 273-309.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Markus, H., & Ruvolvo, A. (1989). Possible selves: Personalized representations of goals, In L. A. Pervin (Ed.),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211-242). Hillsdale, NJ: Erlbaum.
- Markus, H., Zajonc, R. (1985). The cognitive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 (3rd ed., pp. 137-230). New York: Random House.
- Marshall, G. D., & Zimbardo, P. G. (1979). Affective consequence of inadequately explained physiological arou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970-988.
- Maslach, C. (1979). Negative emotional

- biasing of unexplained arou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953-969.
- McGuire, W. J. (1960). A syllogistic analysis of cognitive relationships. In C. I. Hovland & M. 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pp. 65-111).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cFarland, C., & Ross, M. (1982). Impact of causal attribution on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937- 946.
- Medin, D. L., Wattenmaker, W. D., & Michalski, R. S. (1987). Constraints and preferences in inductive learning: An experimental study of human and machine performance. *Cognitive Science*, 11, 299-339.
- Mill, J. S. (1879/1919). *A system of logic*.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 in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s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Moore, B. S., & Isen, A. M. (Eds.). (1990). *Affect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rray, H. A. (and collaborators).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isbett, R. E. (Ed.). (1993). *Rules for reasoning*. Hillsdale, NJ: Erlbaum.
- Nisbett, R. E., & Cohen, D. (1996). *Culture of honor: The psychology of violence in the south*.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Nisbett, R. E.,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Olson, J. M., & Hafer, C. L. (1996). Affect, motivation, and cognition in relative deprivation research.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3. The interpersonal context* (pp. 85- 117). New York: Guilford.
- Pervin, L. A. (Ed.). (1989).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 Petty, R. E., & Cacioppo, J. T. (1986a).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ew York: Springer-Verlag.
- Petty, R. E., & Cacioppo, J. T. (1986b).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9, pp. 123-205). New York: Academic Press.
-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Harper & Row.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7). Toward an integration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erspectives on social inference: A biased hypothesis-testing model.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 297-340). New York: Academic Press.
- Pyszczynski, T., Greenberg, J., & Holt, K. (1985). Maintaining consistency between self-serving beliefs and available data: A bias in information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179-190.
- Reisenzein, R. (1983). The Schachter theory

- of emotion: Two decades later. *Psychological Bulletin*, *94*, 239-264.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pp. 174-221). New York: Academic Press.
- Ross, M., & Sicoly, F. (1979). Egocentric biases in availability and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37*, 322-336.
- Ross, M., McFarland, C., & Fletcher, G. J. O. (1981). The effect of attitude on recall of past hist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627-634.
- Sanitioso, R., & Kunda, Z. (1991). Ducking the collection of costly evidence: Motivated use of statistical heuristic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4*, 161-178.
- Sanitioso, R., Kunda, Z., & Fong, G. T. (1990). Motivated recruitment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29-241.
- Schachter, S., & Singer, J. E. (1962). Cognitive, social,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Psychological Review*, *69*, 379-399.
- Sears, D. O., Peplau, L. A., & Taylor, S. E. (1991). *Social psychology* (7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howers, C., & Cantor, N. (1985). Social cognition: A look at motivated strategies.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 (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6, pp. 275-305).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Sicoly, F., & Ross, M. (1977). Facilitation of ego-biased attributions by means of self-serving observer feedbac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734-741.
- Smith, E. R. (1994). Procedural knowledge and processing strategies in social cognition.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1. Basic processes* (2nd ed., pp. 99-151). Hillsdale, NJ: Erlbaum.
- Smith, M. B., Bruner, J. S., & White, R. W. (1956). *Opinions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 Sorrentino, R. M. & Higgins, E. T. (1986a). Motivation and cognition: Warming up to synergism.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3-20). New York: Guilford.
- Sorrentino, R. M., & Higgins, E. T. (Eds.). (1986b).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New York: Guilford.
- Sorrentino, R. M., & Higgins, E. T. (Eds.). (1996).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3. The interpersonal context*. New York: Guilford.
- Steele, C. M. (1988). The psychology of self-affirmation: Sus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elf.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psychology* (Vol. 21, pp. 261-302). New York: Academic Press.
- Steele, C. M., & Liu, T. J. (1983). Dissonance processes as self-affi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19.
- Stephan, W. G., & Gollwitzer, P. M. (1981).

- Affective as a mediator of attributional egoism. *Journal of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17, 442-458.
- Swann, W. B., Jr. (1990). To be known or to be adored? The interplay of self-enhancement and self-verific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 T.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408-448). New York: Guilford.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Fiske, S. T., Etoff, N. L., & Ruderman, A. (1978). Categorical bases of person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78-793.
- Taylor, S. E., Wayment, H. A & Carrillo, M. (1996).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3. The interpersonal context* (pp. 3-27). New York: Guilford.
- Tesser, A. (1980). Self-esteem maintenance in family dynam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7-91.
- Tesser, A. (1986). Some effects of self-evaluation maintenance on cognition and ac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435-464). New York: Guilford.
- Tesser, A.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pp. 181-227). New York: Academic Press.
- Tesser, A., & Campbell, J. (1980). Self definition: The impac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and similarity of othe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341-347
- Tesser, A., & Campbell, J. (1983). Self-definition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In J. Suls & A. G.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2, pp. 1-32). Hillsdale, NJ: Erlbaum.
- Tesser, A., & Paulhus, D. (1983). The definition of self: Private and public self-evaluation maintenance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72-682.
- Tomkins, S. S. (1962). *Affect, imagery, and consciousness: Vol. 1. Posi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 Tomkins, S. S. (1963). *Affect, imagery, and consciousness: Vol. 2. Nega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 Tomkins, S. S. (1981). The quest for primary motives: Biography and autobiography of an ide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06-329.
- Tomkins, S. S., & Izard, C. (1965). *Affect, cogni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Springer.
- Trope, Y. (1975). Seeking information about one's own ability as a determinant of choice among tas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004-1013.
- Trope, Y. (1986). Identification and

- inferential processes in disposition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view*, 93, 239-257.
- Tversky, A., & Kahneman, D. (1971). The belief in the "law of small numbers." *Psychological Bulletin*, 76, 105-110.
- Tversky, A., & Kahneman, D. (1973).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 207-232.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1124-1131.
- Vallacher, R. R., Nowak, A., & Kaufman, J. (1994). Intrinsic dynamics of soci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20-34.
- Weary, G., & Edwards, J. A. (1996). Causal-uncertainty beliefs and related goal structures.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3): The interpersonal context* (pp. 148- 181). New York: Guilford.
- Weiner, B. (1980). *Human moti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Wyer, R. S., & Srull, T. K. (1994a).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1. Basic process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Wyer, R. S., & Srull, T. K. (1994b).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2. Application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 Zukier, H. (1986). The paradigmatic and narrative models in goal-guided inference.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465-502). New York: Guilford.
- Zukier, H., & Pepitone, A. (1984). Social roles and strategies in prediction: Some determinants of the use of base-rate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49-360.

Social Judgment and Motivation: Motivated Use of Cognitive Rules

Shin-Ho Ahn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nt trends of social psychology which emphasize the role of motivation and affects in the explanation of personality and social-psychological phenomena were sketched. Historical background of psychology from "hot" through "cold" to "warm" look was briefly explained. Contributions of the following theories and research were intensively discussed: Kruglanski's lay epistemics, Kunda's motivated reasoning, Tesser's self-evaluation maintenance, and Zukier's narrative and paradigmatic orientations. Experiments on the motivated use/selection of cognitive strategies/heuristics by Sanitioso and Kunda (1991), by Ginossar and Trope (1987), and by Zukier and Pepitone (1984) were critically reviewed and compared with our experiments on the motivated selection between two causal inference rules (Difference Rule vs. Interaction-Effect Rule) and between two categorization rules (Conjunctive Rule vs. Disjunctive Rule).